



45명 의원, 온 힘 다하겠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월 4일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45명의 모든 의원은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감을 자각하고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도민 위한 무한 봉사, 위기 넘어 희망찬 제주시대 열 것”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7월 4일 오전 제12대 도의회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통해 “의원은 도민을 위한 무한봉사자라는 자세를 늘 견지해

야 한다”며 “믿음과 용기, 인내를 갖고 ‘위기를 넘어 희망찬 제주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돌보겠다”며 “도민들이 아파하는 고통의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 의정으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다”

고 피력했다.

또 “역대 도의회가 그랬듯 4·3 완전 해결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 유족에 대한 보상 대책, 4·3의 정명 및 전국화·세계화 등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도정·교육행정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 와 민주당 의장이 탄생한 만큼 협치를 통한 동반자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큰 것으로 안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집행부와도 더 소통하며 제주발전에 힘과 지혜,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자치입법의 새장을 열겠다”며 “의회 내부의 변화도 피해 의원 중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며 의원 간, 정당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전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면 안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 2~3

제407회 임시회 개회 ▶ 4

제12대 도의회 의정 방향 ▶ 5~8

생생 의정활동 ▶ 9

함께 합시다 ▶ 10~11

사무처 소식 ▶ 12



김경학 의장, “민생경제 회복 주력, 갈등현안 능동 대처”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식 출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월 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오전 10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경학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3고(高) 시대’를 초래해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위기, 민생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제12대 도의회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전 요인을 만들어 내겠다. 훗날 제주가 주어진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도약하는 반전 요인이 제12대 도의회에 있었다고 기술할 수 있도록 주어진 4년 임기, 오직 제주의 미래와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피해를 겪은 경제와 민생을 돌보겠다”며 “민선8기 도정이 8,5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도 이에 더해 눈앞의 위기뿐만 아니라 좀 더 긴 안목으로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씨앗을 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 갈등 해소 등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도민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청년 문제, 기후 위기, 탄소제로, 환경문제, 개발과 보존 문제 등 미래 위험요인을 한 발 앞서 내다보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역대 도의회가 그랬듯이 4:3 완전 해결에 힘을 쏟겠다”며 “올해 하반기에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순조로운 보상과 함께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보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4:3의 정명을 찾고, 4:3의 전국화, 세계화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정, 교육행정과 협치의 길도 열겠다”며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와 민주당 의장이 탄생한 만큼 협치를 통한 동반자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집행부와도 더 소통하며 제주발전에 힘과 지혜,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행정과의 소통도 강화해 제주교육의 당면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의회 내부의 변화를 위해 “의원들 간에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도의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의회는 의원 중심,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의원 간, 정당 간 대화와 소통 통해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전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도민의 일상과 밀착된 정책



김경학 도의회 의장

으로 생산적인 도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제주시대 역사적인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8대, 제9대 제주도의원으로 활동했던 오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FTA 협상 문제 등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이어서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기에 저는 도의회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코로

나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까지 본격화되면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의 삶도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안으로 기존 예산에서 8,500억 원이 늘어난 7조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로 제출하겠다. 시급한 주민 불편 해결 분야와 국비 분담 등을 제외한 대부분 가용재원을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014년 교육위원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쳤던 단상에 제주도교육감으로 다시 서게 돼 감회가 더욱 새롭다”며 “평소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격려 질책의 말씀을 주신 의원들의 뜻을 새겨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제주교육의 힘찬 미래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은 이제 새롭게 바뀌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그 길은 바로 소통에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영훈 도지사



김광수 도교육감



호국원, 4·3평화공원 참배, 제12대 의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7월 4일 개원행사를 통해 제12대 의회의 시작을 알렸다. 송재호,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도지사, 김광수 교육감, 역대 의장 및 역대 도지사, 의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의회 개원식, 경축연회가 진행됐고, 제2차 본회의가 종료된 후

호국원 및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원식을 통해 “도민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현장을 직접 찾는 ‘민생의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동료 의원들에게는 “도민을 위한 무한봉사 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기념 식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7월 6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기념해 비자나무 식수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비롯해 전체 도의원이 참석했다. 기념식수 나무는 비자나무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뜻하며 나뭇결이 곱고 재질이

좋아 고급가구, 바둑조판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나무다.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민생의정을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위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길 기원하며 비자나무를 심는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모범적이고 청렴한 의회 구현



김대진 부의장

먼저 부족한 저를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1대 도의회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이제 3년 차 의정활동에 들어서는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직책은 큰 영광이자, 기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12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무척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여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제주’, ‘세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주’를 만들어야 하는 소명이 그렇습니다. 물론 부의장이 의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의장을 대행하는 한정적인 역할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과감한 정책 제안과 함께 일하는 모범적이고 청렴한 의회, 의원 간에 교류와 협력이 넘치는 전통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중한 격언을 가슴에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초월, 소통하는 제주도의회 되어야



김황국 부의장

제주도정과 제주시도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시도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의원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당과 이념보다는 제주의 발전을 위

해 도의회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각각의 도의원들이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정당을 초월해서 도의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제주도의회가 되도록 부의장으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며 제주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집단 지성 모아 한 차원 높은 정책 협치 이뤄내야”

제407회 임시회 개회, 도·교육행정 첫 업무보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월 11일 제40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8일까지 8일간 일정을 시작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똑똑한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의 생각을 조합해 보완하면 더욱 훌륭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집단지성’을 통해 진정한 협치를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또한 김경학 의장은 “새롭게 가고자 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에 여러 의원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이 덧대어 보완되면 한 차원 더 높은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협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무상급식 단가를 높이고 자 증액 편성키로 합의한 것이 협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두 수장의 굳센 악수가 단발성이 아닌, 멋진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최대 상승폭인 7%대까지 치솟으면서 서민 가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갈수록 취약계층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훨씬 두텁게 하자는 전제 하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영훈 도정과 합의했다”며,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선 이번 정책 협의처럼 서로 이마와 무릎을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을 건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 하지만 강자는 디딤돌이라 말한다”며 “현재 제주가 맞이한 위기를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섭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며, “잘 사는 제주, 희망이 넘치는 제주를 만들자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돼야 하기에 이번 회기에서 알찬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 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상임위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 1건, 도지사 제출 의안 32



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을 포함한 34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으로는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상정됐고,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 사업 출연 동의안,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등도 심사를 받게 된다.

도의회-도, 민생 안정화 추경예산안 추진 전격 합의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예산안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방향으로 짜여진다.

특히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정체 및 감소에 이어 ‘신3고(高) 경제 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내라! 제주,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7월 8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3고 경제 위기’ 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 김대진·김항국 부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오영훈 도지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비해 8,5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된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는 물론 ‘신3고 위기’로 인한 충격파가 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두텁고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분야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1차산업, 문화예술·관광, 운송, 청년,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감염병 방역 대응 등으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의회와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로 고통을 겪는 도민의 삶을 위로하고 서민가계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힘내라! 제주,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 총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가계의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신까

지 위축된 상황을 지원하면서 도민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1차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훨씬 두텁게 보호하는 기초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이라며,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의회주의 실현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훈 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서귀포시 남원읍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입니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통합'의 가치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위대한 제주도민께서는 제12대 의회에 두 가지 당

부사항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민 대통합 시대'를 위한 도정과의 협력적 리더십의 발휘이며, 또 하나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도정과의 협력 기조 아래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책임있게 행동하는 의회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정과 내실 있는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의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민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강화하고, 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중심', '정책 중심'의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혁신하고 변화해 제주가 당면한 위기 극복

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치,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꿈꾸며 제12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당을 초월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

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충룡 부위원장



강동우 위원



강연호 위원



강철남 위원



김경미 위원



김창식 위원



송창권 위원



양영식 위원



양흥민 위원



이승아 위원

“언제나,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 기획, 재정, 인사, 조직 등 제주도정의 소위 '머리'에 해당하는 업무를 소관 합니다.

그렇기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설계를 준비하

고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쌓아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 쉽지만은 않기에, 더욱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함을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분권 선도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지난 16년간 지속해 온 행정시 체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새롭게 전 도민의 뜻을 모아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그림자가 아직 짙기에 민선 8기의 재정 운용이 벼랑 끝에 몰린 도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의회뿐만 아니라 공

직사회 전체가 도민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제12대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기본 근간에 관한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기본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제주의 권한이 도민들에 의해 행사되고,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용되도록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실질적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에 제주도민을 최우선에 둔 행정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언제나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가 이러한 말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만 부위원장



이정엽 위원



하성몽 위원



한 권 위원



한동수 위원



현길호 위원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위원회 활동 실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도민 삶의 질이 낮아진 가운데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 복지, 안전의 공공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를 연계한 지속가능 원스톱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필수 의료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완결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확충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제주지역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 핵심 플랫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주로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휴관하거나 임시폐쇄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돌봄에는 어떠한 차별과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사회서비스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 발생으로 제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원인 조사부터 대책 마련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범죄,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지역으로 자치경찰과 연계하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앞두고 있으나 도민체감도는 낮아 현실적 대안 제시를 통한 제주안전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부위원장



강희영 위원



원화자 위원



이경심 위원



이상봉 위원



현지훈 위원

“도민과의 정직한 소통, 지속가능한 제주에 힘을 쏟겠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장 송창권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민사회는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고, 균형을 통

한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도정과 도민과의 정직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최선의 답을 찾아가도록 많이 듣고 많이 살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처리, 주거복지, 대중교통 등은 물론 환경과 개발로 인한 갈등상황까지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소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 경험과 동료 의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도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치를, 도민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 도민의 행복과 미래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아 모두의 슬기

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어려움의 극복이라는 도전 속에서 우리 모두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응전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제12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정 제주의 가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조정과 현명한 선택을 통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환경도시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민과의 정직한 소통, 그리고 제주 미래와 도민의 삶에 대한 고민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부위원장



강경문 위원



강봉직 위원



송영훈 위원



임정은 위원



현기종 위원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관광의 질적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관광체육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아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현재 회복단계에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제 12대 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주의 문화관광은 제주경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도 하면서 우리 도민의

삶을 치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밋점 건물을 매입하는 졸속처리, 연일 터지는 체육계 성폭행 및 비리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예술인, 체육인, 관광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진통과 아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개선과 함께 도민이 먼저 체감하고 다함께 가치를 키우는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의 질적성장 기틀마련을 통한 도민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 문화권 신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창달을 통한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관광수

요의 정상화가 기대되면서 변화하는 미래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도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이 먼저 체감하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 과 제주의 환경과 도민이 상생하는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생산,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숙 부위원장



강상수 위원



박두화 위원



양경호 위원



양영식 위원



정민구 위원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

제주인의 강인한 삶의 바탕에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거친 바다를 개척하는 도전 정신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수눌음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 1차 산업과 지역경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의 핵심 역할

이 도지사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위원장의 소임에 임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하며 제주의 경제상황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 농어민들이 당면한 부채문제와 고유가 및 인력난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증가,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와 수산물 생산 감소,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기존 제주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탄탄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체계의 고도화와 가공식품 산업의 육성, 통상기능 강화를 통한 유통 다양화와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재정비를 통해 1차 산업의 지속성장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4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한 제주 생산품 유통 다변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과거와 미래, 자연과 개발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지금보다 더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1차 산업과 경제 분야를 관장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의 자리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더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충홍 부위원장



강성의 위원



강총롱 위원



고태민 위원



김승준 위원



박호형 위원

“핵심역량 기반 지덕체 갖춘 인재양성 힘쓸 것”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앞으로 제주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임기간 동안 소통을 기반으로 제주교육의 앞날을 위해 세세한 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교육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제주도에서도 상호 간에 협력하며 제주교육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

하여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는 저 또한 제주교육비전을 다시금 가다듬고, 제주교육의 백년지계(百年之計)를 위한 로드맵을 제주교육가족, 더 나아가 도민과 함께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인재양성과 미래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제주학생들의 교육·학예를 관장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있어 21세기 필수 요소인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주교육정책 영역인 개별 맞춤 학습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육성,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 문화예술체육교육 강화, 제주교육가족의 교육복지 향

상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자치 구축 등의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청을 견제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활발한 상임위 활동, 교육행정질문, 교육현안 점검 등을 통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견제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학생이 오늘 현재가 행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민과 교육가족들과 함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주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홍식 부위원장



강동우 위원



고의숙 위원



김대진 위원



김항국 위원



오승식 위원



이남근 위원



정이운 위원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 도민 눈높이에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누군가가 소외를 받는 길은 그늘이 드리운 상황입니다. 도민의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안정화를 이뤄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도내 실물경제 회복과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이루고 제주도민의 행복을 함께 응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추경 심사에서 정부 추경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관련 상세 분석 및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도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일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감시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민선8기 제12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민생경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로 이해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록 전시성 예산에 대해 확실히 지적하면서, 소모성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선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상수 위원



고의숙 위원



고태민 위원



김승준 위원



양병우 위원



양영식 위원



양홍식 위원



원화자 위원



임정은 위원



하성용 위원



한 권 위원



현기중 위원

성산포항·한림항 어선 화재사고 현장 찾아 지원책 모색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위원들이 성산포항에서 어선 3척이 전소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연이어 한림항에 계류중인 어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을 찾아 지원책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7월 6일 화재 발생으로 어선 3척이 전소한 성산포항 피해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8일에는 한림항을 찾았다.

현장방문은 지난 7월 4일 04시 29분경 성산포항 내 계류중인 어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인해 전소된 어

선 3척과 항내 2차 해양오염 피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한림항 화재는 7월 7일 한림항에 계류중인 어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실종선원 수생상황 등 사고수습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한림항 현장 방문에서 강연호 위원장은 “성산포항 어선화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신속한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 2022’ 결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13명이 모여 초선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 의원들은 7월 6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 폐회 직후, 회의를 열고 모임 명칭을 ‘더 2022’로 정하는 한편, 양경호(노형동갑) 의원을 만장일치로 2년의 임기인 대표의원으로 추대했다. 또 간사의원으로는 김기환(이도이동갑) 의원을 선정했다.

제12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은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경험을 축

적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의 모임 결성이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이번 초선의원 모임의 취지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냐는 초심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기존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각으로 주어진 현안에 대해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양 대표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 있는데,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다 보



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에서 공통점을 찾는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현안을 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의원은 또 “초선의원들 간에 정보공유와 협력, 배려를 통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2022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특별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6월 29일 사단법인 환경보전대응본부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가 주최·주관한

2022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민구 의원은 제주에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채식급식을 통해 학생 건강권 확보 및 보장, 그리고 탄소배출 감소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모

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후위기대응 채식급식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민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채식 식단은 축산업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환경에 기여하는 점이 크다”면서, “채식식단 전환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며, 학생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으로 환경을 위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보람을 느끼며, 단순히 조례 제정을 넘어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와 관리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적관람석이란 관

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뜻한다.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을 표기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동행자가 공연장 등 공공시설을 찾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등 기본적 권리확보에서 나아가 높아지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Q&A



Q

○○부처 국장 A의 자녀 B가 ◇◇공기업에서 실시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에 응시하였는데, A는 해당 공기업 인사담당자 C에게 자신의 자녀 B가 응시하였으니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B가 합격했다면 A, B, C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B는 A에게 인사청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가정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인 자녀 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자녀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기업의 인사담당자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A의 자녀 B가 채용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생활 & 법령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Q

착오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친구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는데,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되나요?

A

착오송금을 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전 반환절차를 거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은행, 농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를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 ☞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1588-0037)

신기한 제주어 ⑱

어머님

계수년 음력 이월 초이틀

그날 후제

무거운 어머님 옷독지

누르뜨멍

나는 철없이 변갱이 질르멍 옷자랏다

마당에 신 낭덜

지금77장 커 가고

아이덜토 커 가는다

등짐 한 번 못 내리신

어머님은

추추

죽아지신다

(어머니)

1953년 2월 2일 / 그날 이후 / 무거운 어머님 어깨 / 누르면서 / 나는 철없이 뽀으며 옷자랏다 / 마당에 있는 나무들 / 여태 자라고 / 아이들 커 가는데 / 등짐 한 번 못 내리신 / 어머님은 / 점점 / 작아지신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회	총137일 • 정례회 2회/58일 • 임시회 9회/79일	본회의 34일 상임위 50일 예결위 17일 공휴일 36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04회 임시회	4.25.(월) (1일)	본회의 1일	• 안건 처리
5월				
6월	제405회 임시회	6.14.(화) ~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6회 임시회	7.1.(금) ~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2대 의회 개원식 • 원구성 등
	제407회 임시회	7.11.(월) ~ 7.18.(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주요업무보고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408회 임시회	7.21.(목) ~ 7.29.(금)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 안건 처리
9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9.16.(금) ~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10회 임시회	10.18.(화) ~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2023년도 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12회 임시회	12.19.(월) ~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9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감귤 열매숙기 적극 동참하자

이상 기후와 과원마다 다른 재배 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동일 관리 보다는 과원을 수시로 파악해 각 과원별 생육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열매숙기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열매숙기를 통해 적정 착과를 하게 되면 무적과 시 보다는 높은 당도 및 낮은 산도의 열매가 달리게 되며 해거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열매숙기를 하고 남은 과실에 영양분이 많이 집적돼 극소과를 방지하고 열매의 크기를 균일화하는 효과



한 경 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높은 당도·낮은 산도
작업능률 상승효과

를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무적과 시 보다 2배 정도 작업능률 상승효과가 있다. 즉 열매의 상품성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인건비 측면에서도 절약 효과

가 발생한다.

열매숙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한 나무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열매숙기를 하는 것보다

는 열매 달린 부위와 나무의 수세를 보면서 시기별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농가들은 열매숙기에 소극적이다. 열매숙기라는 것이 본인이 생산하는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지혜로운 농가들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애지중지 만들어낸 자식 같은 귀한 것들을 작은 미련 때문에 미적거리는 농가들이 많다.

그러나 당장 열매숙기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는 비상품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길 바란다.

복지사각지대 해결방안은 ‘여러분’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두 가지 방법이 주를 이룬다.

첫째는 정부에서 분기별로 읍·면·동에 통보하는 클라이언트이다. 건강보험료·통신비·전기료·국민연금 체납, 기초생활 수급 신청탈락, 주거 취약,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로 여겨지는 클라이언트다. 명단이 통보되면 읍·면·동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복지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상담을 하는데 방문 요구 또는 필요가 있는 가구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우편물 도착 시기에 전화가 없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가



이 민 철
제주시 조천읍
주무관

지역사회 위로와 격려
한 번 더 살아갈 용기

정도 방문 상담한다.

둘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동네 삼촌 등 이웃들이 ‘복지사각지대 같다’라는 연락이 올 때이다. 이때는 열 일을 제쳐두고 방문 상담을 진행하

고 있다.

소득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근절할 수는 없다. 지금도 누군가는 정부나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디선가 역경 속에

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정부 지원보다 먼저 자신을 누군가 도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인지할 때 한 번 더 살아갈 용기를 낸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을 줄 수 있다.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협력하며 나아갈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필자 또한 조천읍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지역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년 치 금액의 반을 7월에 한번, 그리고 나머지 반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꺼번에 부과되고, 이를 ‘연납’이라고 부른다. 7월에 주택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본인이 내는 재산세가 연납이라면 고지서 상에 ‘연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1기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을 것이다. 7월에 ‘1기분’이라고 적힌 고지서를 수령하신 분은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의 고지서가 ‘2기분’으로 기재되어 발송된다.

다음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문의가



강 하 라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7월, 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해야

많이 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본인 건물에 대해 고지서가 두 장이 왔는데 이중부과가 된 것이 아닌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1장, 건축물분 고지서 1장을 받으신 분들이고,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한 차이를 궁금해하신다. 재산세에서 주택과 건축물의 정의를 쉽게 풀어보자면, 주

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은 상가 건물, 창고 등을 말한다. 간단하게, 집은 주택, 주택이 아닌 것이 건축물이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위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로, 상가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된 것

으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겼다면 백전백승에서 한 단계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 부과될까? 바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재산세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는 않을까?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까지 끝냈다면 재산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것이라 하겠다.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국 금융기관, 세무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등을 이용하여 잊지 말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붉은 해의 기운으로 밀려드는 파도가 붉은 해의 기운으로 가득 물들었다. 타오르는 물결 위를 유유히 타고 넘는 서퍼들이 자연의 한 조각처럼 스며든다. 평온하고, 안전하고, 희망 가득한 7월. 제주의 자연이 도민 속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이창훈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 이경심 의원 선임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7월 6일, 제4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12명의 신입 위원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입위원은 강동우,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김경미, 김

창식,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양홍식, 이경심, 이승아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는 이경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임 송영훈 위원장은 “지난 5월 공



송영훈 위원장

이경심 부위원장

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의원윤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사전적 예방적 자정기능을 강화하여 전국 최고의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 업무보고 개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는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제407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우선 확인하고 이에 따른 주요현안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현장에서 파악된 현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물론, 제17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실효성, 타당성 및 시행상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개원 후 첫 주요업무보고를 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현안을 수렴하여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체계적인 의정활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제주교육의 대의기구로서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심사 운영 설명회 열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7월 1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심사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6일 선임된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현안으로 다가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예결특위는 민생안정을 위한 경기부양과 신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위기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특히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